

## “활성화 vs 재검토” 시험대 오른 광주 공공자전거 ‘타랑개’

이용횟수 감소세, “효율성 낮고 환경도 열악” 지적 잇따라  
 市 “인프라·환경 개선...녹색교통 활성화” 빅데이터 분석도

광주시가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운영중인 무인 공공자전거 ‘타랑개’가 계속 존속될 지, 전면 재검토될 지 시험대에 올랐다. 차고 넘치는 필요성과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과 효율성이 낮고 이용 환경도 열악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광주시의 고민이 깊다.

2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타랑개 이용횟수는 도입 첫해인 지난 2000년 1만8834회, 2021년 2만7220회, 2022년 2만5145회를 각각 기록했다. 도입 첫 해에 7월부터 운영된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운영 3년째지만 하루 평균 이용대수도 70~80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최초 공공자전거인 대전 ‘타슈’에 이어 도입된 ‘타슈 시즌2’의 올해 1분기 이용량이 81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증가했고, 대중교통으로서 각광받고 있는 서울시 ‘따릉이’, 창원시 ‘누비자’, 세종시 ‘어울림’과도 대비된다.

실적이 저조한 요인으로 부족한 인프라가 첫 손에 꼽힌다. 타랑개는 서구 상무지구와 동천동, 광천동 일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운영대수 350대에 정거장도 51곳에 불과하다.

4만 여대에 대역소만 2600곳, 355만 회원을 거느린 서울에 크게 뒤쳐졌고, 광주 지역 카카오톡 바이크와 비교해도 운영 대수가 3분의 1 수준인 데다 시설물도 장소별로 제각각이다. 운영시간도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한정됐다.

시의회는 올해 예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연간 5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됨에도 대당 이용률은 4~5일에 한 번꼴로 효율성이 낮고 관련 시장 선점에서도 밀렸고, 아파트 등지에 밀려난 자전거들이 장기 방치되고 있는 현상은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이어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와 다른 타시·도 사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더 늦기 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예산을 자전거가 좋은 도로 여건 개선 등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교통 혼잡 완화와 탄소중립,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타랑개의 당초 도입 취지를 중시해 운영 활성화에 방점을 찍되, 존속 여부에 대한선 원칙론을 기본으로 신중한 태도다.

시는 우선, 불만이 제기돼온 타랑개 앱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제시스템도 간편화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운영 실태 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실태 분석은 이달말 완료될 예정이다.

미반영된 하반기 관련 예산은 7월 2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타랑개의 활성화 방안을 묻는 홍기열 의원의 시정질문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미래 세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하나의 목표”라며 “첨단지구에 자전거 특화마을 시범지구를 선정해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타랑개 정거장도 광주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주무국장인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도 “이용률이 낮아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타랑개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 한편에는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고, 친환경 저탄소 녹색 교통수단 확충이라는 시대흐름상 존속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이슬기자



즐거운 비눗방울 놀이

어린이 날을 사흘 앞둔 2일 부산 남구 파크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 광주 수도관 노후율-상수도본부 인력 운용 ‘도마’

내구연한 지난 경년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심각

광주 지역 상수도관 노후율이 전국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이지만 예산이 넉넉잖아 교체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행정 인력 운영 시스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전면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동시에 ‘선택적 우선순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2일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통계 등에 따르면 광주 지역 상수도관 중 내구연한이 지난 경년관(傾年管)은 2019년 1174km, 2020년 1365km, 2021년 1508km로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전체 상수도관 대비 노후율은 2019년 29.4%, 2020년 33.9%, 2021년 37.3%로 이역시 꾸준한 증가세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속도감 있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2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 사태와 고질적인 누수율 증가를 예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미정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이날 상반기 첫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 상수도관, 특히 경년관 교체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노후 상수도관 정비 기본계획상 시급히 교체해야 할 229km의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내년부터 지금보다 두 배 많은 332억 원이 필요하고, 2018년부터 5년간 노후관 연장만 148km에 538억 원이 들었다”며 “이같은 예산 배정이라면 경년관 1632km 교체는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노후관 정비에만 10년 이상 걸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점삼 광주시 상수도본부장은 “1985년에 용연정수장, 1994년에 덕남정수장이 각각 준공되면서 그 무렵 관거 포설이 많았고 이후 동북담 도수관로 연결, 지연된 배수지 설비 등에 투자를 집중하다보니 예산 한계로 노후관 정비가 늦어졌다”며 “모니터링과 주기적 순찰에 힘쓰고, 주기적으로 밸브 점검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답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20년 이상 된 경년관을 모두 교체하는 건 예산상 무리가

있는 만큼 기술조사를 통해 선택적 우선순위를 계획해야 할 때”라며 “6년간 1332억의 예산을 투입 중이고 부족한 재원은 특광역시 균특회계 지원 등으로 충당키로 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운용 문제도 지적됐다. 박 의원은 “상수도본부 평균 근무이 서기관 8개월, 사무관 1년6개월, 6급 이하 1년10개월, 특히 본부장은 8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책을 촉구했다.

정원 대비 현원이 9급은 크게 웃도는 반면 7, 8급은 50~70% 수준을 보이는 등 직급별 불균형도 지적됐다.

이에 강 시장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승진전보 인사는 (본청과) 통합하되, 핵심 인력은 전문성을 확 키우고 사업소 역시 발탁 내지 승진 인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부서들이 함께 고민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광주시 상수도관은 4046km로, 이 가운데 절반인 2013km가 20년 이상 지난 노후관이다. 이로 인한 누수율은 5.7%로 특·광역시 평균(4.2%)보다 높다.

김재환기자



# 2023

## 대한민국

### 진도개

# 페스티벌

2023. 5. 5.(금)~6.(토)

장소: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Jindo** 진도군

**+ 반려견 시범 및 대회**

- Dog스포츠 시범 및 대회
- 반려견 10m달리기 대회 등

**+ 관광객 참여-체험 행사**

- 어린이 탐승형 로봇체험
- 어린이 페들보트 체험
- 어린이 퍼즐 맞추기 체험
- 어린이 낚시체험
- 어린이 비눗방울 체험
- 애견 미용 체험
- 애견 수영장 체험
- 부모와 함께하는 애견 산책
- 반려동물 교감·교육 체험
-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체험
- 진도개 공예품 체험 등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우리함께 만들어 가요!